

우리나라 담배포장 변천사(3)

19. 새마을(1966. 8~1988. 12)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여파는 농촌에까지 번져 '새마을 운동'은 농촌근대화의 상징적인 슬로건이자 행동지침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전성기 때 발매된 담배가 새마을담배이다.

새마을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수많은 청록횡선을 갑포장지 중앙하부에 긋고 청록횡선사이에 말끔히 새로 단장한 주택을 조화있게 도안했다.

1974년 4월 1일 담배품종다양화 정책에 의해 새마을담배의 향미를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구분하여 발매하기도 했다. 갑포장지 색상이 담갈색은 향미가 강하고, 연두색은 향미가 약한 제품이었으며, 포장형태는 20본들이 A형, H형의 두 종류가 있었다.

20. 화랑(1949. 3~1981. 12)

화랑은 우리나라 국군용 특수담배로써 1949년 5월 1일부터 발매하기 시작했다.

화랑담배 갑포장지 의장은 황색바탕에 중앙에 암갈색의 마름모꼴내의 각형내에 육·해·공군의 상징마크를 백색으로 도안했다. 이후 8차에 걸친 의장변경이 있었으며 1974년 1월 1일부터 화랑담배에도 14mm 아세테이트 필터를 부착하기 시작했으며 76년 6월부터는 전략적인 뜻에서 필터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이필터를 부착했다.

32년 간 국군들의 애호품으로 유명했던 동 담배는 1982년부터 일반 국내용 담배로 대체됨에 따라 81년 12월까지 국군들에게 보급됐다.



21. 모란(1961. 1~ 196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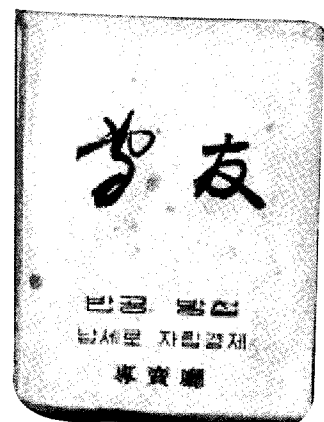


모란담배는 당시 전매청 직원 전용의 특수제조 담배로써 우리나라 해방당시부터 발매됐으나 최초에는 백색 갑포장지에 청록색 글씨로 '牧丹'이라고 표기하여 전매공무원에게 배급한 것으로 갑포장지로서 의장가치가 없었다. 1961년에 비로소 담배 갑포장지의 체제를 갖췄다.

모란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청록색 바탕에 모란꽃 가지를 옆으로 누워 백색으로 표상했으며 그 상부의 전면에는 '모란'을 백색으로 표기하고 후면에는 백색의 리본 위에 청록색으로 'MORAN'이라고 표기했다.

22. 전우(1964. 11~ 1975. 12)

모란담배의 명칭은 후에 전우(轉友)로 바뀌었으며 1965년 10월부터는 필터담배로 발매되다가 1975년 12월 서정쇄신(庶政刷新)과 관련하여 전매인만 특혜를 주는 사례는 있을 수 없다하여 발매를 중지했다.



23. 아리랑(1958. 1~ 198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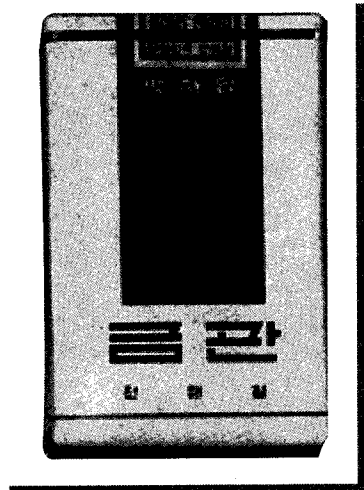
아리랑은 1958년 초에 발매된 우리나라 최초의 필터담배이다. 1959년 아세테이트 필터를 사용하면서부터 소비자의 인기를 독차지했으며 1959년부터는 아세테이트 필터를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1962년부터 국산 필터를 개발 생산하여 아리랑담배를 제조했다.

갑포장지 의장은 상부의 담홍색 바탕에 전면은 '아리랑'은 후면에 'Arirang'을 백색으로 표기했다. 이후 6차에 걸친 의장변경이 있었으며 1988년 12월 담배소비세법이 중량세로 개정됨에 따라 적자제품으로 전락되어 단종됐다. 아리랑의 포장형태는 20본들이 A형 및 H형 편포장 50본들이 통(CAN)담배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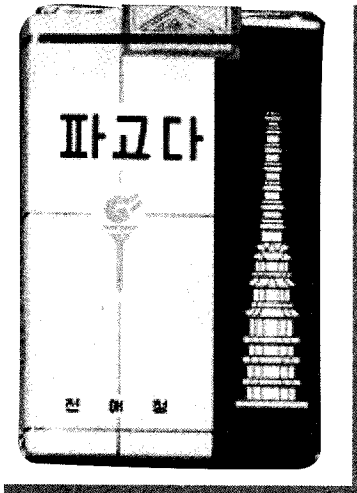
24. 금관(1961. 1~ 1974. 8)

금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매된 박하향 담배이다.

금관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백색바탕의 상하단에 백색 바탕의 금색횡선을 긋고 상단에서 밑으로 좌우에 백색여백을 두고 중앙부분에 청록색 바탕을 깔고 청록색 바탕 위쪽에 백색으로 '박하담배'라 표기했고 포장형태는 20본들이 H형 연포장이었다.



25. 파고다(1961. 8 ~ 1979. 7)



파고다담배의 갑포장지 의장은 갑포장지 좌측을 백색, 우측을 적색바탕으로 하고 좌측 백색부분 중앙에 민족운동의 선봉임을 표상하는 봉화를 금색으로 도안했다.

그 후 우측 적색이 반공이념에 맞지 않다 하여 녹색으로 바뀌 발매하다가 1970년 1월 발매를 중지했다. 1974년 4월 1일 재차 발매됐으나 소비성향의 고급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1979년 7월초 발매중지됐다. 갑포장형태는 20본들이 A, H형 연포장이었다.

26. 새나라(1962. 1 ~ 1963. 4)

새나라담배는 5·16, 6개월 후 발매된 담배로 당시 군사정부의 정책이 담배명칭에 반영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장은 갑포장지 전면에 하늘색과 백색을 고루 조화시켜 얇은 구름이 낀 청명한 하늘을 표상했다.

새나라담배는 발매 1년만에 영국담배 베리아(Bellair)와 갑포장 의장이 동일하다는 지적이 있어 발매 중지했으며, 갑포장형태는 20본들이 H형 포장이었다.



27. 상록수(1963. 1~ 1964. 11)



당시 담배의 명칭은 정치, 사회상과 밀접한 관련 아래 작명되어졌으며 상록수담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상록수는 일제시대 농촌근대화 소설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서 채택됐으며, 당시 농촌근대화 운동을 한참 추진하던 정부의 시책에 부합하는 담배의 명칭이었다.

갑포장지 의장은 백색 바탕에 담황색의 굵은 세로줄을 긋고 갑포장 중앙의 청록색 원내에 '상록수'와 'SANGROGSU'를 백색으로 표기했다. 포장형태는 밑으로부터 둘러싸는 H형 포장이었다.

28. 희망(1964. 11~ 73. 12)

희망담배는 REGULAR SIZE의 짧은 (70mm)필터담배로 20본들이와 10본들이 2종이 있었으며 포장형태는 담배 날개비가 2열로 포장된 Side형 포장이었다. 20본들이 갑포장지 의장은 황색 바탕의 중앙에 백색의 원형상부에 황색으로 위를 향하여 날고 있는 새의 형상을 표시하고 아래쪽에는 '반공 방첩'이라 표기했다.

